

우수 약용작물 생산 · 유통대책

2005. 3



문 제 열 사무관 채소특작과

1.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현황

1. 생산 및 수급

약용작물 생산은 '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웰빙문화 확산, 수입한약재의 안전성문제 등으로 국산한약재 수요는 증가세로 전환

- '04년도 생산량은 44.7천톤, 생산농가는 37.7천호이며 단일품목중심으로 다수농가가 분산재배하고 있음
- 호당 재배면적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0.3ha정도로 영세함

국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은 47개 품목이나 사삼, 당귀, 황기, 두충, 길경, 독활, 오미자 등 10대 품목이 주로 재배되고 있음

- '04년 품목별 재배면적
 - 사삼2,579ha, 당귀1,042, 황기727, 두충585, 길경534
 - 독활361ha, 오미자451, 산약433, 산수유368, 천궁406

약용작물의 '03년 국내 총수요량은 91.1천톤 수준이며, 국내 자급률은 49%수준임

- 약용작물은 건강 · 기호식품으

〈표 1〉

	'95	'00	'01	'02	'04	'04/'95
생 산 량(천톤)	42.0	30.1	30.8	35.6	44.7	106
면 적(천ha)	15.0	9.9	10.2	10.0	11.6	77
재배농가(천호)	63.5	37.1	34.6	34.2	37.7	59
호당규모(ha)	0.24	0.26	0.29	0.29	0.30	125

'03년 약용작물생산액 : 4,231억월 / 호당 11.2백만원

로 소비는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소비량 추세는 불안정

- 1인당 소비량(kg)

'90	'95	'00	'04
0.62	1.41	0.62	0.6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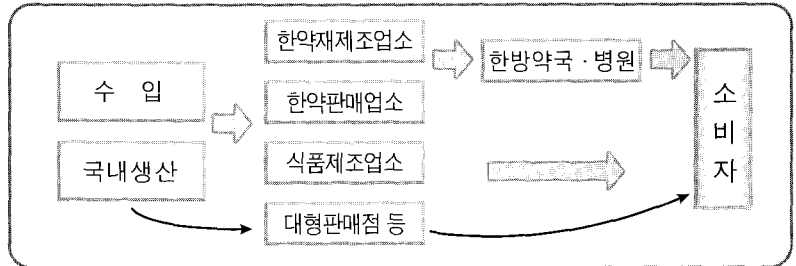
- '77년 한약재수입자유화 이래 중국산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'92년도를 전후하여 수입한약재가 유통되기 시작하였음

2. 유통현황

□ 관련제도

- 농림부 : 약용작물로서 재배·생산관리
 - 품질인증제도운영, 안전성검사, 원산지 표시·단속, 품종육성, 유전자원보존, 재배기술연구·보급 등
- 보건복지부 : 한약재의 제조 및 유통은 기본적으로 "약사법"과 "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" 등에 의해 『의약품』으로 취급되며 "식품위생법" 및 "식품공전"에 의해 『식품』으로 관리되고 있음
 - 한약재로 관리(약사법), 식품으로 관리(식품위생법)
 -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약재 514품목(국내재배 한약재는 47개 품목)

□ 약용작물 유통체계



- '77년부터 한약재 수입은 자유화(관세율 8%)되었으나 '93. 8. 재배농가보호와 수급·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

- 수급조절품목(18개 품목)은 국내생산, 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입여부 및 수입물량제한
- 연도별 수급조절품목축소

'93	'94	'95	'97
43품목	41	29	26

'01	'04
21	18

- 약용작물은 용도(일반식품·한약재)별 산지(수입산·국산)별로 유통경로가 다양함

II. 문제점

1. 약용작물 신품종육성(고부가가치 품종)개발·보급 미흡

- 외국산과 차별화된 고기능성 품종 육성필요
-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연

구 미흡

2. 한약재의 규격화, 품질, 안전성 기준 및 제도 미비

- 한약재의 약효(품질)에 대한 규격화가 어려워 전통적인 관습으로 거래
- 약용작물 재배농업인의 잔류농약, 중금속오염, 환경오염 등 안전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농약 안전사용 기준설정미흡

3. 한약재의 유통질서문란 및 공정한 가격형성 기능 미약

- 수집상, 한약재제조업자 등 수요자측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생산자의 가격협상 교섭력이 부족하며 유통상인들의 농간이 심함
- 수입산 한약재를 국산한약재로 또는 혼합판매하고 소비자는 국산과 수입산의 식별능력이 없거나 부족
- 한약재에 대한 생산재고량, 수입량, 소요량 등의 정보미흡으로 과잉 및 품귀현상 등으로 가

격등률이 심함

- 한약재의 공판장,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없음

4. 한약재수급조절제도의 통상마찰 우려

- 한·중무역실무회담 등에서 중국측이 수급조절제도의 폐지를 주장

5. 농산물(한약재) 원산지 단속 및 부정유통단속에 한계

-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의약품 판매업소(한약전문도매상, 한약방, 약국)에서 취급하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단속권한이 없음
- 수입제한 한약재를 식품원료로 수입하여 한약재로 유통 및 위장수입에 대한 단속 미흡

III. 우수 약용작물 생산·유통 대책

1. 추진 목표

국산한약재의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확보를 통해 웰빙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육성

2. 중점추진과제

□ 고품질 약용작물 개발·연구강화

- 유전자원보존, 우수약용작물 품종 집중육성
- 표준재배기술 및 기능성 제품 개발·보급

□ 약용작물 품질안전관리

-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등록
- 생산출하단계에서 농약안전성 조사철저

- GAP생산확대 및 이력추적시스템 조기정착

□ 지역Cluster사업방식으로 약용작물 생산·유통기반조성

- 지역공동사업선택·설계, 타당성 검토후 Package형 지원

□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유통체계구축

- 약용작물 생산·유통 계열화 사업추진
-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자조금단체로 육성
- 농협하나로클럽에 국산한약재 전문취급 한의원 개설

□ 한약재 유통관리제도 개선

-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, 한약재 HSK품목 세분화
-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

2. 고품질 약용작물 개발·연구강화

□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

- '04년 120과 640종 → 2010년 130과 1,000종 확대
- 기능성 물질함유 유전자원확보 및 동정분류연구, 자원정보D/B화
-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및 작물화(실용화)연구
- 특정성분 고품유 cell line 선발 및 증식기술개발

□ 우수 약용작물 품종 집중육성

- '04년 17작물 40품종 → 2010년 22작물 54품종 육성
- 특히 당귀, 황기, 작약, 구기자, 천궁, 오미자, 지황, 산약,

맥문동, 울무 등 10대 작물 품종집중육성

- 외국산과 차별화된 고기능성 품종, 친환경, 재해저항성 품종 등
- 생명공학 기술접목에 의한 특수성분 강화품종

□ 약용작물 표준재배기술 개발·보급

- 기존 35품목 표준영농교본개편(당귀, 황기, 오미자, 작약, 지황 등)
- GAP관리지침보급 : '05년 10 품목 → 2010년 15품목

□ 연구인력 및 기능강화

- '04. 1. 29. 농진청 작물과학원 내 인삼약초과 신설(26명)
- 인삼연구실7, 약용작물연구실6, 토양병해충연구실6, 천연물연구실7
- 인삼약초연구소 신설방안 강구(4개과 11개연구실/66명)
- 산학역할분담 약용작물 공동연구(농진청, 지방연구기관, 대학)
- 작물과학원(당귀, 지황 등), 경북신물질연구소(작약, 목단 등)

□ 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촉진

- 다양한 가공품 생산으로 국산한약재 신규수요창출
-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유도
- 산·학·연 공동연구 농림기술개발사업 지원

3.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약용작

물 품질안전관리

홍화, 천궁, 삼주, 마)

□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

- 17개 주요품목에 대해 연차적으로 18종 농약안전기준설정 및 등록추진
 - 마, 오미자, 작약, 지황, 천궁, 황기, 구기자, 도라지, 산수유, 강활, 독활, 백수오, 삼주, 시호, 향부자, 황금, 감초
 - 연구기관별 역할분담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조기완료
- 〈연구기관별 역할〉
- 작물과학원 인삼약초과 : 종합연구계획수립·조정, 약효·약해검정
 - 농업과학기술원 유해물질과, 농약공업협회 : 잔류성검정, 안전사용기준
 - 농촌진흥청 농업지원과 : 시험설계검토 및 등록업무지원
- 〈연구기관별 집중연구작목 : 17품목〉
- 작물과학원(지황, 황기, 감초), 경기도원(울무), 강원(오갈피, 황기), 충북(하수오), 충남(맥문동, 구기자), 전북(오미자, 독활), 경북(작약, 목단,

□ 농약안전사용 교육강화

-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생산농가 지도·교육 대폭확대
 - 영농기전 주산지역별 순회, 생산자 및 관계기관 합동교육 실시
 - 취약품목 생산포장방문, 농업인과 대화 등을 통하여 현장지도 확대
 - 인터넷 홈페이지, 지역방송, 전문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시

□ 생산출단계에서 농약안전성 조사철저

-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확기에 농약안전성 조사실시
- 대상품목 : 22품목(구기자, 더덕, 도라지, 두충, 마, 맥문동, 방풍, 복분자, 부자, 산수유, 오가피, 오미자, 울무, 지황, 당귀, 천궁, 천마, 택사 등)
- 농약안전성 기준설정에 따라 대상품목 확대

□ GAP(Good Agricultural Practice) 및 이력추적시스템

조기정착

-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한약재 생산을 위한 토양·수질·대기 등 재배환경과 비료·농약살포 기준 등 재배관리기준을 규정하고, 재배전 토양·수질검사, 출하30일전 잔류농약·중금속 검사 시행
 - '03년 : 5품목 9농가 4.3ha에서 10톤생산
 - '04년 : 8품목 35농가 28.6ha에서 92톤생산
- 연차적으로 GAP생산품목 및 농가확대
 - 품목확대 : '04)8품목→'05)13→'06)25→'07)35→'10)45
 - '05년시행 : 구기자, 당귀, 맥문동, 울무, 작약, 황기, 인삼, 천궁, 오미자, 지황, 산약, 황금, 산수유
 - 농가확대 : '04)35농가 → '05)200 → '06)400 → '07)600 → '10)1,000
 - 2013년까지 3,700농가(전체 37,000농가중 10%추진)
- GAP이행을 위한 지원확대
 - 토양·수질검사비, 수확후 중금속·잔류농약분석비 전액 국고지원
 - GAP위생시설·생산기반시설 지원 : 10억원기준(국고 30%, 지방비20%, 자부담 50%)
 - 집하선별포장장, 저온저장시설, 예냉시설, 위생장비 등

... <계속>

추진연도	병해충 방제약제	제조제
1차('01~'05) (6작물, 9적용병해충)	마(점무늬병), 오미자(흰가루병), 작약(흰가루병, 탄저병, 뿌리혹선충), 지황(점무늬병), 천궁(뿌리응애, 잎마름병), 황기(노균병)	마, 천궁(1년생잡초)
2차('06~'10) (8작물, 9적용병해충)	구기자(응애), 마(선충, 탄저병, 시들음병), 오미자(점무늬병, 깍지벌레), 천궁(흰가루병), 산수유(탄저병), 도라지(점무늬병)	오미자, 황기, 감초, 도라지(경엽처리제조제)
3차('11~'15)	강활, 독활, 백수오, 삼주, 시호, 향부자, 황금	감초, 삼주, 시호, 향부자, 황금